

호랑이 천적

삼성 윤성환에 뺏맞고 넥센 나이트에 화풀이

(KIA전 3승)

(KIA전 3패)



삼성 윤성환에게 뺏맞고 넥센 나이트에게 화 풀었다. 프로야구에는 '천적관계'가 존재한다. 6위 KIA의

올 시즌은 확실하다. 감자에게 약했고 약자에게 강했다. 1승11패로 삼성 앞에서 고양이와 쥐고 최하위 한화 앞에서는 8승2패로 강세를 보였다. 넥센(6승4패)에겐 우위를 보이기엔 했지만 LG(5승7패) 두산(3승5무1패) 롯데(4승6패) 등 상위팀에게 모두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7위 SK에 6승3패로 한발 앞서 있지만 8위를 달리고 있는 신생팀 NC(6승1무4패·7일 현재)와도 만만치 않은 승부를 벌였다.

삼성전 일방적인 패배에는 윤성환, 넥센전 뺏박의 우위에는 나이트가 있다. '원삼·성환' 삼성 듀오는 10승 중 6승을 가져가며 KIA를 물렸다. KIA만 만나면 반가운 장원삼과 윤성환은 세 번의 출격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활짝 웃었다. 장원삼은 9승에 3승을 KIA에게 뺏아왔다. 3경기(17.1이닝)에서 2개의 피홈런 포함 16피안타 6사사구를 허용했지만 타선의 집중력 난조 덕에 실점은 4로 묶였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50이지만 KIA전에서는 2.08로 가장 낮다.

윤성환은 더 강했다. KIA전 3경기에서 0.78의 평균자책점(시즌 2.97)을 남기며 3승을 수확했다. 이 중에는 생애 첫 완봉승도 있다. 23이닝을 던지면서 17개의 피안타와 함께 8개 상대팀 중 가장 많은 5개의 볼넷도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 관리능력을 선보이며 KIA의 방망이를 꽂고 묶었다. KIA는 윤성환에게 당한 화풀이를 나이트에게 했다. 나이트에게 KIA

는 너무 어려운 상대다.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올 시즌 8승8패(평균자책점 4.59)를 거두고 있는 나이트는 3패를 KIA에게 당했다. 모두 완패였다. 개막전 첫 대결에서부터 5이닝 4실점의 기록을 남겼다. 패전투수는 면했지만 시즌 첫 만남부터 힘을 썼고 KIA는 덕분에 개막전 8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어린이날은 나이트에겐 악몽이었다. 타자들이 1회부터 타자일순하며 나이트를 혼들었다. 3.1이닝 8실점. 지난 4일

시즌 4번째 만남에서도 KIA 타자들의 자신감 있는 스윙은 계속됐다. 김진우가 무결점 피칭을 이어가는 동안 타자들은 1회부터 두 개의 안타로 선취점을 뽑아내는 등 나이트를 공략했다. 결국 나이트는 2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3번째 패, KIA전 평균자책점은 10.47까지 뛰어올랐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KIA는 주먹과 주먹을 맞고 있는 나이트를 주먹으로 때린다. 로테이션상 윤성환이 11일 KIA와의 홈경기에 출격한다.

윤성민을 마무리로 돌리며 기세등등하게 출발한 첫 주에 롯데에 연패를 당한 KIA, 충격의 한 주 끝낸 삼성 그중에서도 '킬러' 윤성환이 기다리고 있다. 일방적인 패배에 분노한 팬심. 11일에는 비로 두 번이나 미뤄졌던 올드 유니폼데이도 열린다. 꼬리 내렸던 호랑이 군단이 사자와의 천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며 팬들의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11일 홈경기서 킬러 윤성환 또 만나
일방적 패배에 분노한 팬심 달랠지 관심



검객의 승부수

이태리 엘리사 디 프란시스카(왼쪽)와 독일 카를린 고루비츠키가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SYMA 스포츠 센터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개인 플뢰레 준결승전에서 팽팽한 승부를 겨루고 있다. 경기모습을 다중촬영해 이미지가 겹쳐 보인다. /연합뉴스

추신수 '출루머신' 이유있었네

ML서 직구 잘치는 타자 1위



내셔널 리그 출루율(0.418) 2위로 '출루머신'이라 불리는 추신수(31·신시타리 레즈)가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중에서 상대 투수의 직구를 가장 잘 때리는 타자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에 따르면 8일 현재 추신수의 '직구에 대한 피치 밸류(wFB)' 수치는 35.1로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중 1위다. wFB는 타자가 올 시즌 동안 상대 투수의 직구를 얼마나 잘 때려 팀의 득점으로 연결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은 '0'이다. 직구에 약한 타자는 이 값이 음수를 나타낸다. 대부분 선수들은 -20에서 20사이의 wFB 값을 갖는다. 팬그래프는 타자의 wFB 값이 30을 넘으면 직구에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추신수 다음으로 메이저 리그에서 직구에 강한 타자는 마이크 트라웃(wFB 33.3·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이다. 추신수의 팀 동료 조이 보토(30.6)가 3위로 그 뒤를 잇는다. 4위는 미겔 카브레라(24.1·디트로이트), 5위는 앨런 크레이그(23.0·세인트루이스), 6위는 크리스 데이비스(22.6·볼티모어)이다. 한편 다른 구질에 대한 추신수의 성적은 평균적인 수준이다. 추신수는 슬라이더에 대한 피치 밸류(wSL) -0.6을, 커브에 대한 피치 밸류(wCB) 0.1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vs 잭 니클라우스

최고의 '골프황제' 누구일까



'타이거 우즈와 잭 니클라우스중 누가 더 위대한 골퍼인가'라는 해묵은 논쟁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

PGA투어 승률 25.99%

통산평균타수 69.39타

메이저 대회 '톱3' 37회

야후닷컴 13개 항목 분석

우즈, 8승 1무 4패



PGA투어 승률 19.39%

통산평균타수 70.29타

메이저 대회 '톱3' 24회



자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승수였다. 우즈와 니클라우스는 이 대회에서 2승씩을 나눠갔다. /연합뉴스

야후 스포츠닷컴은 8일 13개의 항목으로 분석해 두 선수의 우열을 가리는 자료를 제시했다. 결론은 8승1무4패를 기록한 우즈의 승리였다. 13개 항목 중 메이저대회 승수에서 우즈가 니클라우스보다 메이저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로 나선 횟수에서도 우즈는 14차례

를 기록, 니클라우스(10차례)를 앞섰다.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승수에서도 우즈는 79승, 니클라우스는 64승을 거뒀다. PGA 투어 승률에서도 우즈는 25.99%, 니클라우스는 19.39%를 기록했다. 통산 평균타수에서도 우즈는 69.39타로 니클라우스(70.29타)보다 우위를 점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즈가 시즌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바든 트로피'를 8차례나 받았지만 니클라우스는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 이는 니클라우스가 활동할 당시

'바든 트로피' 수상 요건인 80라운드를 치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우즈는 삼금왕 횡수 등을 포함, 모두 8개 항목에서 니클라우스보다 앞섰다. 니클라우스는 메이저 대회에서 6차례 역전 우승을 거뒀지만 역전 우승을 하지 못한 우즈를 눌렀다. 또 메이저 대회 톱3 안에 든 횟수에서 37차례를 기록, 24차례의 우즈를 제쳤다. PGA 투어 톱3 횟수에서도 니클라우스는 136차례를 기록, 우즈(126회)를 앞질렀다. 13개 항목 중 두 선수가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것은 '제5의 메이

'골프황제' 우즈 행동보면 샷 결과 알수 있다

몸 숙이거나 왼쪽 꺾이면 '베드샷'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샷을 하고 난 뒤에 하는 행동으로 샷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자 신문에 '우즈의 보디 랭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샷을 날린 뒤 우즈가 보이는 행동에 따른 샷의 결과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우즈가 샷을 한 뒤에 뒤로 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경우 샷의 결과가 어땠느냐는 것을 분석한 것이다. 우즈가 샷을 한 뒤에 몸을 왼쪽으로 꺾었다면 '베드샷'을 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이 페어웨이에 떨어지거나 핀 가까이 붙은 경우를 '좋은' 공이 그린 위에 올랐지만 홀과는 거리가 멀거나 페어웨이 가장자리에 놓이면 '보통' 나무 사이나 벙커, 깊은 리프에 빠지면 '나쁨' 등 세 가지로 결과를 분류했다. 조사 결과 샷을 한 뒤 우즈가 소리를 지르면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집계됐다. 우즈가 샷을 한 뒤에 소리를 낸 경우가 모두 31번 있었는데 17차례나 '나쁨'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보통이 26%였고 좋은 결과

로 이어진 것은 6%에 불과했다.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징후는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는 것이었다. 샷을 하고 나서 우즈가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왼쪽으로 기울인 것이 23차례 있었는데 이 경우 좋은 샷은 세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또 클럽을 90도 각도로 하늘을 향해 치켜세운 채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는 경우도 결과가 썩 좋지 못했다. 25차례가 나왔고 이 가운데 '좋은'에 해당하는 결과는 5번에 불과했다. 반대로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행동은 샷을 날린 뒤 클럽을 빙빙 돌리는 경우였다. 우즈가 이런 행동을 한 경우는 15차례가 나왔는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완벽한 샷으로 이어졌다. 또 티샷을 하고 나서 재빨리 티를 뽑아드는 경우도 45회 가운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페어웨이에 안착시킨 결과가 나왔다. 샷을 하기 전 동작에서 주위 방해 등으로 자세를 풀었을 경우, 제야무리 천하의 우즈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합뉴스